

책으로 만나는 산업보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증보 제3판)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시행 2020년 1월 16일) 이후 개정판 출간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와 요구를 반영한 정진우 교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책이 출간되었다.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체계와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엄연히 실정법으로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그럴수록 법리에 기초한 교과서적 해설서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 필자가 개정판을 집필한 가장 큰 동기이다. 또 필자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욱 많아져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개정판을 내놓아야겠다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판에서는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부개정 이후에도 몇 차례 부분개정이 있어 그 내용 또한 모두 반영하였다. 금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산업안전보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해당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나마 소개되고 있다.

저 자: 정진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법학박사)
출판사: 중앙경제
발간일: 2021.09.16.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이 과학, 법리 및 실효성에 기초하지 않고 감정과 이념과잉 및 생색내기로 흐르고 있는 데에는 정치권과 행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학계의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무비판적 자세 또는 이념중심적 접근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정책을 이론적으로 선도·견인하기는 커녕 뒤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안전보건학계의 엄연한 현실이다. 학계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산업안전보건 관련학파가 많이,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와 산업안전보건기술 모두에 있어 학문적 기여도가 매우 낮은 상태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시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을 잘 알면서 법학을 전공한 연구자가 저술한 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산업안전

보건법이 기술적인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법률의 하나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이 기술적이고 평면적인 기술로 그칠 수밖에 없다. 또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이 안전보건에 대한 철학, 안전보건원리,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무미건조한 서술로 머물 것이다. 그리고 법을 전공했다고 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이에 대한 해설서를 저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의 안전보건 관련 자격시험 서적이 그러하듯이 내용이 부실하고 부정확한 책은 안전보건에 대한 지식을 오염시킬 수 있어 차라리 없느니보다 못하다. 마찬가지로 현재 발간된 산업안전보건법 책들이 과연 산업안전보건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성격상 법과 산업안전보건 양쪽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어느 한 쪽만의 전문지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를 저술하는 것은 독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피상적으로 접근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이번 개정판은 원고를 작성할 때 이상의 점을 시종일관 염두에 두면서 산업안전보건원리와 법이론에 충실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판에서 역점을 두고 수정·보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해설서이자 교과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원칙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철학, 입법사상, 각 제도의 도입취지, 배경 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법의 흠결이 적지 않고 법리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러한 원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관된 다른 법들과 학제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헌법, 형법, 민법, 행정법, 노동법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법들과 최대한 접목시켜 산업안전보건법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셋째,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 이 쟁점들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최근에 일간지, 전문지에 투고하였던 칼럼들을 관련되는 부분에 삽입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를 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넓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줄 것이다.

넷째, 연구하는 학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해석론을 넘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론도 곳곳에서 함께 개진하였다. 전문성, 정교성 및 논리성이 부족한 우리나라 정부(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지침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으로는 학자의 임무를 다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산업보건관계자 분들께 일독을 권하고 싶다. ☺

